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FTA時代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確保戰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朴 炳 彩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FTA時代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確保戰略

The Strateg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FTA age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朴 炳 彩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朱亨根

FTA時代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確保戰略

The Strateg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FTA age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디지털中小企業大學院

디지털中小企業經營 專攻

朴 炳 彩

朴炳彩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제 1 절 FTA의 배경과 이해	4
1. FTA의 이해	4
2. FTA의 유형	9
3. FTA의 파급효과	9
제 2 절 이론적 배경	22
제 3 절 선행연구	31
 제 3 장 FTA 체결현황과 경제적 효과	47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47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9
2. 미국과의 FTA	49
3. EU와의 FTA	49
제 2 절 FTA의 경제적 효과	47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49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49
 제 4 장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2
제 1 절 중소기업의 역할과 국제경쟁력	52
1. 중소기업의 역할 및 위상	54

2.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	54
3. 국가 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54
4. 중소기업의 국가경쟁력	54
제 2 절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4
1.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4
2. 한-EU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56
제 3 절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62
1. 세계 주요 FTA 성공 사례	62
2. 한국의 피해 사례	62
 제 5 장 FTA시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전략	64
제 1 절 주요 FTA협상결과 중소기업의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안	64
1. 한-미 FTA	62
2. 한-EU FTA	62
제 2 절 정부의 중소기업 대응 및 지원 방안	66
1. 한-미 FTA	62
1. 한-EU FTA	62
 제 6 장 결 론	64
제 1 절 결론	64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6

【 표 목 차 】

[표 1-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
[표 1-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	2
[표 1-3]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3
[표 2-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6
[표 2-2]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7
[표 2-3] FTA의 유형	11
[표 2-4] FTA의 발전 단계별 특징	12
[표 2-5] FTA 대한 연구자 및 연구내용	16
[표 3-1] FTA 협상 전담조직	18
[표 3-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1
[표 3-3] 한-미 FTA상품분야 쟁점비교	23
[표 3-4]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	24
[표 3-5]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25
[표 3-6] 한-EU FTA 협상 진행 과정	26
[표 3-7]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27
[표 3-8] 세계 자동차 생산현황	29
[표 3-9]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의 FDI	30
[표 3-10] 한-미 FTA 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1
[표 3-11] 우리나라의 EU에의 10대 수출 품목 현황	33
[표 3-12] 한-EU FTA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	34
[표 4-1] 숙박 및 음식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37
[표 4-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내용	38
[표 4-3]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42
[표 4-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별 경제발전 기여율	43
[표 4-5]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의 국제 비교	44
[표 4-6]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	56
[표 4-7] 한-미 FTA 협상결과 만족도 조사(단위:%)	57

[표 4-8]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	59
[표 4-9]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업종별 영향	60
[표 4-10] 우리나라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무역현황	63
[표 4-11] 한-EU 무역현황	64
[표 5-1] FTA 협상 결과 중소기업 피해 예상	69
[표 5-2] 업종별 중소기업 예상 피해액	70
[표 5-3] 업종별 전략	74



국 문 초 록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국가 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는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FTA는 말 그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적으로 FTA는 국지적인 무역 블록을 형성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체결을 기점으로 EU, 중국, 인도 등 전 방위적으로 FTA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안보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국에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에 우리나라 시장을 내어놓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대의견도 경청해 볼만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 서명함으로써 FTA시대의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되었다.

한-미 FTA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FT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많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실제로 밀받침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점은 각종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시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다. 이에 전 방위적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FTA와 중소기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을 하고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FTA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그만 학문적인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FTA 체결의 장점으로는 역내국간의 무역증가, 비용절감, 거대 산업자본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투자증진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로 인한 기술력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에 수입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저하, 우수한 기업의 적대적 M&A의 우려, 역외국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은 FTA체결로 인해 우려되는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시대에서 생존하려면 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기업경쟁력 확보전략을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에서 지식집약적인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둘째,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신기술의 도입,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도입 및 지식집약산업으로의 전환, 국산화 제고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FTA시대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가능성 및 일류기업으로의 진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FTA시대를 맞이하여 질적, 양적으로 팽창된 시장을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세계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FTA를 통해 전 방위적으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FTA를 위기가 아닌 무궁한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이후 세계경제는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까닭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상의 속도가 더디고 당사국이 너무 많으므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지역 또는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이기 때문에 다자체제에 비해서 협상 속도가 짧으며 협상 결과 이행이 더 확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1-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¹⁾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FTA는 국가의 선택이지만,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진국의 신기술, 신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1) <http://www.fta.go.kr/user/intro/intro.asp>(2009.11.10)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표1-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체결 현황²⁾

GATT/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확대 (Accessions)	신규 RTA 체결 (New RTAs)	총계 (Total)
FTA (GATT 제24조)	2	115	117
CU (GATT 제24조)	6	7	13
개도국간 협정 (Enabling Clause)	1	25	26
서비스 협정 (GATT 제 5조)	3	52	55
총계 (Total)	12	199	211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2008하반기 국제통상환경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p.3

〈표1-3〉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³⁾

	FTA/CU	서비스 협정	개도국간 협정	활동중지	총계	누계
1995	16	6	1	14	9	99
2000	14	-	2	2	14	168
2001	12	7	1	-	20	188
2002	14	4	1	1	18	206
2003	14	3	1	3	15	221
2004	23	7	-	67	-37	184
2005	10	8	1	1	18	202
2006	12	9	2	1	22	224
2007	8	4	1	35	-22	202
2008	5	3	1	-	9	211
총계 (48~08.7)	310	65	27	191	211	

우리는 이미 미국, EU, 칠레, 중국, 일본,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FTA시대의 한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칠레산 농수산물을 어디를 가나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식탁을 장악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되는 두 가지의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FTA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 제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경쟁하던 국내업체들 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장 환경이 매우 열악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듯,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외국시장에 진출하여 외국의 국내 중소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다른 이름이라는 말은 FTA시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계서, p.3.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비중 면에서 사업체수 97%이상, 종업원수 70%이상, 생산액 50%내외, 부가가치 50% 이상을 보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FTA시대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가려져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변혁의 시대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국과의 FTA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FTA가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후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FTA시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과 FTA에 관한 문헌연구는 지역주의에 관련된 연구 및 세계화와 관련하여 WTO와 FTA에 관한 연구자료, 외교통상부, 등 정부 발표자료, 통계 학술세미나자료,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한-미FTA와 한-EU의 추진 현황과 한-미 체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국가와의 FTA협상체결은 위한 방안과 FTA 협상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FTA로 인하여 미

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의 FTA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이어 제3장에서는 FTA 체결현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된 FTA 추진 중인 FTA에 대하여 을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및 특징과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에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FTA의 이해와 배경

1. FTA⁴⁾의 이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체결되면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무역을 증가하였다. 그 이후 중동 분쟁, 1,2차 오일쇼크 등으로 자원에 대한 공급부족현상을 겪으면서 일부 국가들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및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를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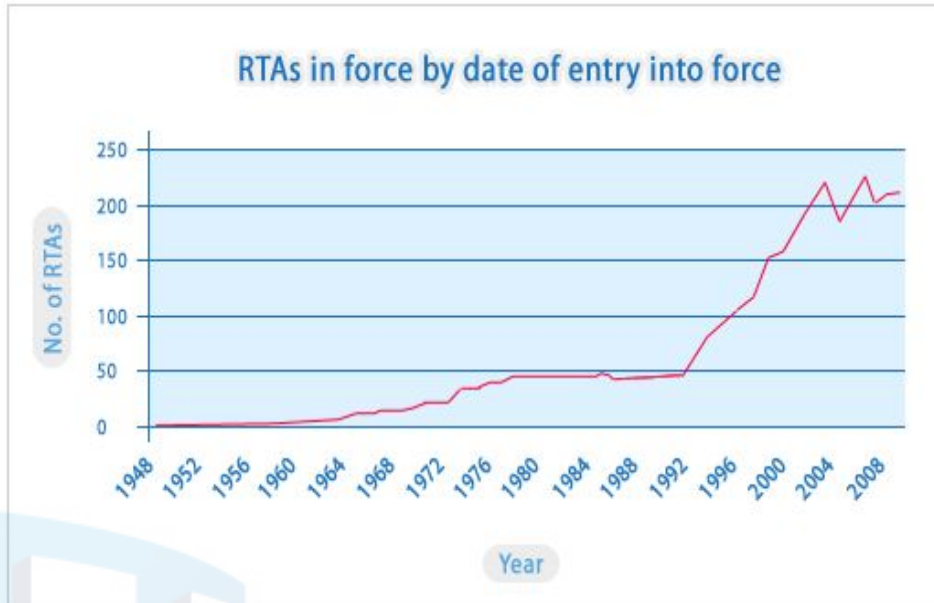
〈표2-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⁵⁾ (2008.12월15일)

	총계
GATT, WTO에 발효중인 RTA	230

4)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5) 출처 : WTO. <http://www.wto.org>

〈표2-2〉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1990년대 이후에는 GATT의 다자주의가 퇴색하면서 지역주의가 고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WTO(세계무역기구)⁶⁾의 출범(1995)을 거치면서 FTA체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TA는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단일경제권을 체결하는特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EC(European Commission:유럽공동체)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등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TradeAgreement)과 혼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한-EU FTA, 한-칠레 FTA와 같이 지역 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원거리 FTA체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

6) WTO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으로, E-U(유럽연합)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1조)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 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FTA에서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통합(Economic Interation)의 형태로 GATT 제 24 조 제8항(b)에 의하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the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간략히 말해서 무역 상황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무역 여건을 조성하자는 협약이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인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함으로써 상품교역을 자유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과 금융, 통신, 법률, 의료,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소유권보호 강화 등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FTA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모든 규범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결국간 입장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간에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양상을 보이게 된다.

WTO체제 이후 다자무역 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등 지역주의가 확장되는 이유는 WTO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른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 FTA의 유형

FTA의 유형은 학자나 각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부문별 협정, 기능적 협정, 포괄적 협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분별 협정: 어떤 특정산업이나 상품교역에 대하여 협정대상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에 합의함을 말한다.

-기능적 협정: 정부조달, 무역관련 투자, 분쟁해결절차 등 특정한 제도에 대한 국가간 협정을 의미한다.

-포괄적 협정: 전 분야의 상품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여, 투자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교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FTA나 RTA는 체결국가간에 관세 및 비관세부문의 상호특혜를 부여하므로 비체결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FTA는 GATT와 WTO의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최혜국 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는 본래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뚜렷한 진전이 없자 주요 무역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이 아닌 상대국을 직접 선정해 양국 간에라도 자유무역을 실현하자고 추진하

게 되었던바 이것이 FTA이다.

FTA와 관련된 WTO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FTA는 협정을 맺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하여는 회원국들 나뉘는 무역보호수준(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게 된다.⁸⁾ 이러한 FTA는 1960년대에 형성된 EFTA를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1994년에 출범한 NAFTA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FTA의 유형은 다음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 또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같은 범주에 속하는 FTA라 할 지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⁹⁾

7) 김세영 외(2003),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p.22.

8) 박변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17~18.

9) 배기형(1993),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p.15~16

〈표2-3〉 FTA의 유형¹⁰⁾

구 분 (기관 및 학자)	분 류
UN	■ 장기무역협정 및 계약 ■ 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 Sector간의 통합 ■ 자유무역 지역 ■ 관세동맹 ■ 경제동맹
J.Tinbergen	■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 부분적 통합 ■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경제동맹
B.Balassa	■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Alim Elagrar	■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한 경제동맹 ■ 완전한 정치적 통합
S.P.Magee	■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동등시장 ■ 완전한 경제통합
M.Chacholiades	■ 부분별 특혜무역협정 ■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그러나 일반적으로 FT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B.Balassa의 분류기준 즉,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의 발전단계별 특징을 보면, 지역통합 협정의 가장 초보 단계가 체약국 사이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FTA가 회원국에 대한 대외적 독립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공동의 대외 관세

10) 이제기(2005), 『FTA의 이해』, 한울 출판사, p.133.

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시장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다음단계인 경제동맹은 회원국 사이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된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즉, 경제동맹에서는 이러한 경제정책들을 상호 협조하여 실시하게 되며, 더 나아가 화폐까지 단일화한다면 완전한 형태의 경제동맹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 경제통합이란 역내 경제정책의 통일을 전제로 하며, 각 회원국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도 수반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¹¹⁾

〈표2-4〉 FTA의 발전 단계별 특징¹²⁾

단계	특징
제1단계 자유무역 지역 FTA	-통합에 참가한 각 회원국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예 : NAFTA, EFTA)
제2단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의 단계에서 회원국 상호간에는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동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예 : 베네룩스 관세동맹)
제3단계 공동시장	-회원국 상호간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동의 관세를 채택하는 형태(예 : EEC, CACM, CCM, ANCOM)
제4단계 경제통합	-각 회원국 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제공동체.(예 : EC)
제5단계 완전경제 통합	-회원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각 가맹국의 모든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 예 : EU

11) 김세영(2004), 『국제무역론』, 율곡출판사, p.35.

12) 신경환 박종수(1999),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p.88.

3. FTA의 파급효과

한-미,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7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 원(3.08%) 정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적으로 35만원(2.16%),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더 커진다. 이렇게 자본축적효과를 고려할 경우 FTA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단기에서 증가된 소득의 일부가 저축되어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 세계무역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 단기에는 64.7억 달러(2.62%)의 순증이 예상되며 장기에는 무려 110.4억 달러(4.47%)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단기에는 63.4억 달러(3.81%), 장기에는 81.9억 달러(4.92%)가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단기에 1.3억 달러(0.16%), 장기에는 28.5억 달러(3.54%)의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EU FTA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약 30만명(1.81%), 장기적으로 59만 7천 명(3.58%)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1차 산업에서 2만 8천여 명, 제조업에서 4만 5천여 명의 취업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37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주로 가공식품, 기계류, 철강■금속 등이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부문은 일반차량, 통신■방송, 건설, 전력■가스■수도 등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는데, 1차 산업의 경우도 상당수 일자리가 다시 창출되어 거의 FTA 체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2차 산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FTA 체결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52만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모든 총 효과로서 단기와 장기에 취업자 수는 각각 30여만 명과 약 6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미, 한-EU FTA는 한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비중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직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진국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한-미, 한-EU FTA의 GDP 증대효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 0.1%의 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국가의 GDP가 15억~20억 달러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국가들은 또한 수출과 수입 증대효과도 아울러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¹³⁾

제 2 절 이론적 배경

FTA의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 된다. 장기적 효과는 동태적인 효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동태적인 효과 즉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기법의 발명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 생산성증대, 소비자 후생 증가등과 동일하다.

외교통상부가 내세우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동태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효과는 바이너(Viner)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뉜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효과로 역내관세의 철폐를 인하여 회원국들이 높은 가격의 국산재화를 낮은 가격의 블록내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소비자 잉여의 증가와 사회적 후생증대를 가져온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 철폐로 인하여 저가의 지역 블록 외의 재화가 높은 가격의 역내상품으로 대체 되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이 두 효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FTA가 과연 유용한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편](2006), 「한·미 FTA와 한국경제」, 김홍중 외(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78.

환 효과보다 커야 세계 전체적인 효용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각국이 비교우위를 통해 특정산업에 대해 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특화는 불가능 하고 대부분 부분 특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는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각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 하고 이는 곧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다른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커서 한 국가의 실질 이득이 아주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국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역전환효과의 피해를 보는 산업의 노동자들은 FTA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실제 FTA의 반대 시위가 주로 노동계층과 특히 농민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영화계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자 계층에서는 정부의 FTA 추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업과 식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적인 장벽,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의 차이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에서 모두 동일한 결론들을 도출해 주지 않고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제 3 절 선행연구

지금까지 FTA와 무역구제제도에 관한연구는 FTA을 단독으로 다루거나 무역구제제도 중 일부분으로써 무역구제분야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 각각에 대한 연구와 사례연구 또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지만 FTA와 무역구제를 함께 다룬 연구가 부족하며 실증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FTA와 무역구제제도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내

용을 실제 FTA 체결 시 적용했던 것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관심 깊게 살펴본 주요 선행 연구는 FTA의 체결과 무역구제제도의 연결 고리 측면을 다룬 것이다.

이에는 고준성¹⁴⁾, 김봉철¹⁵⁾, 박변순¹⁶⁾이재기¹⁷⁾등의 연구가 있다.

〈표2-5〉 FTA대한 연구자 및 연구내용

연구자	제 목	연 구 내 용
고 준 성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문별 유형분석	-FTA의 법적 체제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법에 관한 이해에 관한 연구서. -FTA가 체결되었거나 타결된 FTA 중 7건의 협정을 주된 분석 대상 ·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 중 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항목별 연구 · FTA의 조문의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 모색
김 봉 철	FTA세이프 가드규정에 관한 연구	-FTA 정책과 체결된 FTA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 및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온 사항을 핵심내용으로 다룸 -세이프가드에 관한 사항도 관련 규범의 정비가 진행되어짐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박 변 순	한국의 FTA 전략	-FTA가 세계 통상 무대에서 중요한 추세로 등장하는 이유제시 -한국의 FTA 체결 필요성, 한국-칠레, 한국-일본, 한국-미국 등 국가별 FTA 추진사례 서술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FTA가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취약산업(특히 농업)에 대한 대책,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을 제시
이 재 기	FTA의 경제학	-FTA 동향 및 관련 이슈를 정리 -국내외 경제의 동향과 전망, 경제통합이론과 경제통합체 현황수록 -FTA 배경지식, 세계 주요 국가의 FTA 추진동향, 한국의 FTA 추진동향과 과제를 제시 -학자들의 시각과 논리, 관련참고문헌과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함.

14) 고준성(2003), 「자유무역협정 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산업연구원.

15) 김봉철 외(2008), 「FTA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6) 박변순, 전개논문.

17) 이재기(2007),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고준성은 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을 통해 한국의 FTA의 상품무역규정의 이슈별 한국의 협상가이드라인을 모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무역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의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내용을 분석, WTO협정을 기준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협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무역구제제도의 유형과 관련하여 고준성이 분석한 틀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한-미 한-EU FTA 협상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김봉철은 우리나라의 각 FTA에서 무역구제규정을 살펴보고 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규정은 WTO협정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FTA에서는 WTO협정 내용이상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무역구제법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박변순은 FTA 역내국간 반덤핑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미-EU FTA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TA 역내국간 이루어진 반덤핑 건수를 이용해 반덤핑을 사용하는 주요국가가 FTA를 체결하면서 반덤핑을 줄여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논의 중인 각국 간의 FTA의 체결 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촉진시키고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반덤핑협정은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기는 FTA와 관련하여 기본개념, 경제적 효과, 동향, 전망, 그리고 제 이슈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한-미, 한-EU 간 FTA 체결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의 FTA 추진전략과 성공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FTA 신규가입국과 한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또한 한-미, 한-EU의 경쟁관계, 우위관계를 기준으로 FTA체결 시 시장의 예상 보호 강도를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한-EU와의 교역특성 및 FTA체결에 대한 경쟁 산업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무역구제분야의 협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재기의 연구가 한-미, 한-EU 교역특성을 중심으로 FTA의 체결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임에 비해 무역구제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제 3 장 FTA의 체결현황과 경제적 효과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¹⁸⁾

세계는 치열한 무역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는 국제화시대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국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 경제권과 FTA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반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표3-1〉 FTA 협상 전담조직¹⁹⁾

구분	미 국	멕시코	일 본	한 국
조직	USTR(대통령 직속무역대표부)	경제부	전담조직 없음 (외무성, 경제산업성 담당)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
인력	국제통상법과 협상 실무에 밝은 전문가	경제부 국장을 비 롯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4개성청의 정부관 료 주축으로 구성 (4개성청체제)	외교부 협상전문 외교 관을 비롯하여 각 부 처 통상담당 공무원
구성	USTR의 과장급 수 석대표와 관련부처 차관보급 공무원	경제부 다자-지역협 상국장을 단장으로 재정부, 외무부, 농 림부 공무원이 참여	외무성경제담당외 무심의관이 수석대 표를 맞고 외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업 경제산업성의 국장 또는 차장이 참여	통상교섭본부 심의 관을 단장으로 기 획재정부, 지식경제 부, 농림식품산업부 등 관련 부처 통상 담당 공무원 참여

우리나라 최초의 FTA는 2002년 칠레와 처음으로 타결 되었으며, 2003년

18) 참조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19) 일본과 유사한 추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대만 등이 있고, 멕시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있다.

APEC(Asia-Pacif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FTA관련 실무협의를 지난 2008.4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친 과장급협의(제1차 2008.6.25 동경, 제2차 2008.12.4 서울)에 이어 금번에는 심의관급으로 격상되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실무협의에서는 한-일 FTA 협상 재개 환경조성과 관련한 양국 내 논의 진전 상황 점검, 한-일 FTA의 이점, 그리고 양국의 관심사항(농수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산업협력, 정부조달 등)에 대해 양측 간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FTA 협상은 순조롭지가 않다.

일본이 농산물의 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라도 부품소재 산업과 공산품분야에서 민감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번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차기 실무협의 개최 시기 등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8월 시작된 E-U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해 왔으며, 2009년 10월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한-EU FTA는 협상종결을 하였으며 내년 1/4분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2010년 중에는 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잠재적 성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²⁰⁾으로 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 12차 협상에서 타결, 금년 2월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을 하였고, 정부는 향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FTA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멕시코, 호주등과는 FTA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 일본등과는 협상 준비 및 재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품·서비스 교역, 무역 원활화 조치, 투자교류 촉진, 경제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겨 있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더 광의의 성격이다.

세계최대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는 2009년 6월에 타결되었으며,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경영·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다.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을 중장기(3년 이상) 추진 대상국으로 설정하여, 제1차~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2005년 2월부터 4월 중 세 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쳐 협상을 개시하였다.²¹⁾ 한미 FTA를 통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써 그 규모는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 보다 크다.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05년 2.6%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지만, 한·미 FTA가 대미 수출에 있어 현재보다 22.7%의 증가 효과(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 출범 이후 호주, 뉴질랜드, GCC(걸프지역 6개국)등 다수국이 한국정부에 FTA를 협상 중이거나 협상준비를 있다하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1) 홍순영, 전영재 외(2007), 「SERI 전망 2008」, 삼성경제연구소, p.126.

〈표3-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²²⁾

진행단계	대상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된 FTA	칠레	04.4.1 발효	최초의 FTA
	싱가포르	06.3.2 발효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EFTA	06.9.1 발효	EU시장의 교두보
	ASEAN(상품)	07.6.1 발효	신흥시장과의 FTA
	ASEAN(서비스)	09.5.1 발효	
	ASEAN(투자)	09.9.1 발효	
서명 및 협상타결 된 FTA	미국	07.6.30 서명	거대경제권과의 교류
	인도	09.8.7 서명	남부아시아 진출
	EU	09.10.15 가서명	
협상중인 FTA	캐나다	08.5.7.8 FTA회기간 농업회의(밴쿠버)	북미시장의 교두보
	멕시코	08.6.9~11 FTA 제2차 협상(서울)	북중미 시장의 교두보
	GCC	09.3.9~10 FTA 제2차 협상(리야드)	자원부국과의 교류
	호주	09.8.31~9.4 FTA 제2차 협상(서울)	양국 간통상관계 점검
	뉴질랜드	09.9.14~18 FTA 제2차 협상(서울)	09.12.3차 협상 예정
	페루	09.10.19~22 FTA 제4차 협상(서울)	일부협상 타결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FTA	일본	09.7.1 FTA협상재개를 위한 제3차 실무협의 개최(서울)	실무협의 심의관 급이상으로 격상
	중국	08.6.11~13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 (북경)	공동연구 실시
	MERCOSUR	09.7.23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 서명	제1차 협상계획중
	터키	09.5 FTA 공동연구 완료	
	러시아	08.7.8~9 경제동반자 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회의(모스크바)	
	콜롬비아	09.8.31 민간공동연구 종료	공청회 후 FTA 협상 결정
	이스라엘	09.8.17 민간공동연구 개시	
	SACU	08.12.9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시 양국간 FTA민간공동연구 개시협의	

2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FTA추진현황”, <http://fta.go.kr>

2. 미국과의 FTA

세계 최대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으나, 비공식적인 협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한-미 FTA 체결의 공식적인 논의는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FTA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³⁾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 국가 중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대상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대만을 꼽아 왔으며, 이들 국가 중 싱가포르는 이미 무역자유화를 실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싱가포르는 2000년에 양국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를 위해 2001년부터 협상에 돌입하였다.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서비스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진출 시 거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미국과의 FTA체결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상당수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미국과의 FTA체결에 관한 논의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는 당시 미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한-미FTA를 이용한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 1990년대 접어들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양허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과의 FTA체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한국과 칠레의 FTA협상이 진전되자 미국 측은 한-미 FTA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2001년 4월 26일 한-미 FTA 체결 추진 배경은 1997년 말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아울러 한-미 간 무역규모가 연간 약 700억불로서 한국이 미국의 제 6대 무역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마찰이 증대되고 있고,

2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2006), 「한-미FTA쟁점사항과 대응과제」, p5.

양국의 국내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호 자유무역의 필요성이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3-3〉 한-미 FTA상품분야 쟁점비교²⁴⁾

한국측	구분	미국측
-즉시철폐, 3년내, 5년내, 10년 내, 기타등 5단계로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등 한국이 강한 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분류	상품(공산품) (품목수:9,158개)	-즉시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석유화학, 의료기기 등 미국이 강한 분야 즉시 철폐로 분류
-즉시철폐, 3년내, 5년내 철폐 등 3단계로 구분 -섬유 품목 대부분을 즉시 철폐로 분류	섬유 (품목수:1,296)	-즉시철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즉시 철폐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년 내 이상으로 분류
-즉시철폐, 5년내, 10년 내, 15년 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구분 -쌀 쇠고기 콩 등 개방제외를 비롯해 상당수 15년 이후로 분류	농산물 (품목수:807개)	-즉시철폐, 3년 내, 5년 내 7년 내, 10년 내기타 등 5단계로 구분 -농산물 상당 비중을 즉시 철폐 대상으로 분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계화시대에 맞춰 무한 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이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떨어져 질 수 밖에 없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의 확보가 성장의 관건이다. 따라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경쟁국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여

24) 정인교(2007), 『한-미 FTA 100%활용하기』, 한국무역협회.

우리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체결 당사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역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표 3-4〉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의 산업별 현황²⁵⁾

(단위 : 백만 달러, 도착기준)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962년~2005년
농·축·산업 및 광업	-	-	-	-	-	156
제조업	259	220	71	323	571	6,549
도·소매 (유통)	746	313	496	2,747	1,409	2,190
금융·보험	202	112	160	2,549	1,007	5,048
부동산·임대	34	38	100	35	25	310
비즈니스 서비스업	93	67	62	82	240	1,089
전기·가스 건설·수도	2	47	4	-	25	421
합계	1,007	580	571	3,070	2,004	16,437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략에 있다. 한미 양국의 교역은 산업내무역과 산업간 무역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내교역의 활성화는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간 교역의 활성화는 해당 산업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25)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한국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표3-5〉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²⁶⁾

지역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2006년
세계	5.0	8.4	18.3	22	21.7
개발도상국	5.4	9.8	26.2	27.8	26.4
동아시아 (일본제외)	7.8	9.7	34.8	27.8	28.4
싱가포르	52.9	83.1	123.1	160.2	150.2
중국	0.5	5.8	17.9	16.2	14.9
한국	2.1	2.1	8.1	9	9.1

단위:FDI stock/GDP(%)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은 비체결국에 비해 미국시장 접근에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어서 시장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발도상국들이 다자협정보다 양자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끝으로 정치 안보적 측면에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언제든지 북한과의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전쟁 억지 측면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양국 간 외교관계를 강화시키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EU와의 FTA

EU(European Union, 구주연합)는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자유화를 우선시하는 통 상정책을 추진 해왔으며, 1990년대 말부터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DDA²⁷⁾ 타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6) UNCTAD World Investment Reoort(2006).

27)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

그러나 주요국의 FTA 추진 경쟁과 WTO DDA 협상의 더딘 진행으로, EU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을 향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EU의 의도도 한국과의 FTA 추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2006. 10. 4. Mandelson²⁸⁾ 집행위원은 DDA와 함께 WTO-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신통상정책안을 발표하여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선택한 데 이어, 2007.4.23 EU측은 EU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의 FTA 협상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EU FTA 출범을 위한 EU측 절차를 완료하였다.

〈표3-6〉 한-EU FTA 협상 진행 과정²⁹⁾

협상 차수	협상 주요 내용
제1차 2007. 5. 5~11(서울)	-상품 양허(개방)초안 6월 말까지 교환, 공산품에 대해 10년 내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전체 90% 이상 관세철폐 원칙에 합의
제2차 2007. 7. 16~20(브뤼셀)	-한국 측 상품 양허안에 대해 EU측 실망 표시
제3차 2007. 9. 17~21(브뤼셀)	-한국 측 상품 양허 수정안관련 ‘주요받기식(Request & Offer)’으로 협상모드 전환하지는 한국 측 제안을 EU측이 거부
제4차 2007. 10. 15~19(서울)	-EU측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 비관세에 대해 양측 의견차 재확인
제5차 2007. 11. 19~23(브뤼셀)	-상품 양허 분야에서 세부품목별 협의 재개 -자동차표준 관련, EU측은 한-미 FTA에 기초한 한국입장 수용불가 재확인
제6차 2008. 1. 28~2. 1(서울)	-양측 견해차 큰 상품 양허 및 자동차 기술표준분야 공식협상 미 개최·경쟁, 분쟁해결 등 일부 분과협상 타결
제7차 2008. 5. 12~15(브뤼셀)	-상품 양허 및 자동차 부문 공식협상 여전히 열리지 못함 -원산지, 서비스, 비관세, 지적재산권, 분과협상
2009. 7. 13.	협상타결

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28) 2004~2008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29)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올해 한국과 EU간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며 “한-EU FTA 협상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TA의 타결을 구두로 선언한 것이다.³⁰⁾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 왔다.

2003년 8월 FTA 로드맵 작성 시부터 정부는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FTA 대상국에 포함하고 FTA 추진방안과 관련한 내부검토를 착실히 해왔다.

〈표3-7〉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³¹⁾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누계 (60~08)
EU의 투자액	4,436	3,054	1,680 ,	3,073	3,008	4,780	4,970	4,331	44,811
미국의 투자액	2,921	3,882	4,490	1,242	4,717	2,689	1,704	2,340	38,998
일본의 투자액	2,451	776	1,403	542	2,262	1,880	2,111	989	20,529
중국의 투자액	76	69	249	50	1,164	68	39	384	2,178

2003년 8월 FTA 로드맵 작성 시부터 정부는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FTA 대상국에 포함하고 FTA 추진방안과 관련한 내부검토를 착실히 해왔다. 2006년 5월 필리핀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EU 양측이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EU FTA

30) 중앙일보 원문 2009. 7. 17.

31) 지식경제부(2008) <http://www.mke.go.kr/>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6년 7월 및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2006년 말부터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정부 내 의견 조율작업을 가졌다. 우선 2006. 11. 24. 한-EU FTA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6. 12. 6. FTA 민간자문회의를 갖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006. 11. 7. FTA 실무추진회의 및 2007. 4. 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한-EU FTA 추진방안을 조율하였다.

2007. 4. 20. 정부차원의 연찬회를 개최하여 협상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짚어 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과 EU 양측은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수석대표 및 담당자간 채널을 상시 열어 두고 협상 관련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였다.

EU는 상품분야에서는 자동차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EU가 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자동차 분야에 있어 EU측은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 시 유럽시장에서의 한국산 차량의 점유율 급증을 경계하고 있었다. EU측은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시 상품분야보다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차원의 조달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 왔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GI)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 왔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업의 경우 한국과 EU 양측 모두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가늠하게 한다.

〈표3-8〉 세계 자동차 생산현황³²⁾

지역별/국가별	2006	2007	증감율
EU-27	18,697,868	19,717,643	+5.5%
일본	11,484,233	11,596,327	+1.0%
미국	11,292,123	10,780,729	-4.5%
한국	3,840,102	4,086,308	+6.4%
전 세계	69,222,975	73,152,696	+5.7%

자동차 분야에 있어 EU측은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 시 유럽시장에서의 한국산 차량의 점유율 급증을 경계하고 있었다.

EU측은 EU는 한국과의 FTA 협상시 상품분야보다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차원의 조달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 왔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GI)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여 왔었다.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업의 경우 한국과 EU 양측 모두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가늠하게 한다.

한-미 FTA체결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EU와 협상에 임하였던바 지난 9월13일 한-EU FTA가 타결 되었다.

FTA 협정문 중 상품 관련 부문은 EU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며, 이는 관세율 변경, 무역 협정 체결, 무역구제정책 등 전통적인 무역 정책은 EU 공동체가 배타적 협상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EU FTA는 올해 안으로 가서명 예정이고, 이후 정식 서명과정을 거쳐 2010년 초 발효를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승인 등 아직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예정 된 일정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지만

32) 세계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2008.(www.oica.net)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 수입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그 규모는 1.7조불로서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세계 수입시장에서 21.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05년 2.6%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대미 수출에 있어 현재보다 22.7%의 증가 효과(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³³⁾

〈표3-9〉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의 FDI³⁴⁾ 증가율 변화

국가	대비기간		미국으로부터 FDI의 연평균 증가율	
	FTA 발효전	FTA 발효후	FTA 발효전	FTA 발효후
칠레	1990~2003년	2004년	6.04	10.61
싱가포르	1990~2003년	2004년	11.84	15.19
호주	1990~2003년	2004년	20.76	84.30
캐나다	1990~1993년	1994~2004년	0.20	19.18
멕시코	1990~1993년	1994~2004년	15.86	29.22

33) 이준규(2006),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56.

34) 외국인 직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外國人 直接投資] :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자본 이동을 말한다.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계약 등을 통해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 관계에 있는 자기업(子企業)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물론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대한 수출도 현재보다 44.4% 늘어나겠지만 (생산성 증가 효과 고려 시), 이러한 교역의 확대를 통해 우리의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이 증대될 것이다. 만약 일본,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입지가 악화된다 할 것이다.

우리(역외국)의 대미 수출은 일본과 중국(역내국)에 의해 대체될 것이 뻔한 일이다. 일본과 FTA 체결 이후 멕시코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에 미온적인 사실을 본다면,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볼 것이다.

FTA는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 추진하더라도 언제 가능할지 모르며,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적당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칠레의 경우 미-칠레 FTA 발효('04.1)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승 (A- → A)한 것을 알 수 있듯이, 한미 FTA 출범 후, 호주·뉴질랜드, 멕시코, GCC(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 가능성 타진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3-10〉 한-미FTA한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³⁵⁾

구분	단기효과	중장기 효과
생산	0.79%(3조3천억원 증가)	4.53%(18조7천억원 증가)
고용	1.27%(40.4천명 증가)	6.52%(208.1천명 증가)

한미 FTA를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기대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며 협상타결 됨에 따라 양국 간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문과 계층이 있을 수 있으나 한미 FTA로

35) 박수중(2007),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콜로세움, p.56.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의류, 전자산업기계가 수출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또한 고무제품, 신발, 가죽 제품 등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어진다.

반면에 석유화학 분야는 수출 증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철강업계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인 수출 증대 효과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우리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FTA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FTA 체결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현상은 수 많은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효과를 다른 요인으로터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개방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표3-11〉 우리나라의 EU에의 10대 수출 품목 현황³⁶⁾

단위:MIT3단위, 백만 달러,%)

순 위	품목	2006			2007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1	자동차	9,163	18.9	10.2	8,500	15.2	-7.2
2	무선통신기기	7,600	15.7	-11.2	8,392	15.0	10.4
3	선박	7,437	15.3	24.5	7,497	13.4	0.8
4	평판 디스플레이	3,132	6.5	128.3	3,455	6.2	10.3
5	반도체	2,755	5.7	25.1	2,961	5.3	7.5
6	컴퓨터	2,108	4.4	-20.9	2,376	4.2	12.8
7	자동차 부품	983	2.0	48.7	2,071	3.7	110.6
8	영상기기	2,092	4.3	-7.5	1,995	3.6	-4.6
9	건설광산기계	1,105	2.3	41.2	1,584	2.8	43.3
10	철강관	868	1.8	208.7	1,377	2.5	58.6
	10대 품목 소계	37,243	76.9	11.1	40,208	71.8	8.0
	합계	48,450	100.0	11.0	55,982	100.0	15.6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모형으로 분석할 때 FTA 거시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나타난다.³⁷⁾

첫 번째 경로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가격은 각 나라의 비교 우위를 반영하게 되어 각 나라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발생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러한 FTA를 체결한 국가사이의 무역증가로 인하여 제 3국과의 무역이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FTA체결에 따른 무역조건이 변화이다. FTA를 체결한 국가사이의 수입관세의 철폐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무역조건 개선 및 악화 정도는 수입가격하락과 관련하여 수출가격의 변화 정도에 달려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EU의 27개 회원국에 대한 시장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36) 한국무역협회(2007), <http://www.kita.net/>

37) 김홍중(2006),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pp.37~38.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EU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와인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환경, 통신 등 EU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국내 보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관세인하,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세계 최대단일시장에 접근하게 되면 EU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효과가 한-미 FTA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12〉 한-EU FTA가 실질 GDP미치는 영향³⁸⁾

구분 (년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0.3	0.45	0.5	0.6	1	11.5	14.5	15.8	18.5	20	21	22.5	25

한-EU FTA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도 있다.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생산 및 수출이 감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별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킴으로써 전략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을 견지해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38) 지식경제부(2008)

제 4 장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중소기업의 역할 및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우리 경제의 핵심은 경공업위주의 개발정책이 전개되었으며 고도성장을 지향하였던 1970년대는 기초중화학공업이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쪽으로 정부의 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경제정책의 기초가 안정을 추구하였던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고용창출,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³⁹⁾

각 나라마다 국민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만은 사실이며,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 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99.2%에 이르고 종업원 수도 75.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각 나라마다 상이하여 확실적인 개념을 도출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하고 중소기업에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의 역할 및 위상

최근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

39) 조희영 외, 『중소기업경영론』, 삼영사, p23.

다. 그러나 최근 세계의 주요 공업국들은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동력의 약화에 직면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이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개괄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창의성의 발현과 혁신의 원천이다. 수많은 기업이 진입과 퇴출을 거듭하며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지 못하거나 하기를 꺼려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혁신 및 성장 동력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 뿐만 아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경직된 대기업의 조직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조직은 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려 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민첩하지 못하며 또한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작은 몸집에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신제품들이 이와 같이 유연성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그릇된 생각 중 하나는 경제성장·발전 및 기술혁신을 대기업, 대자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21세기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은 산업의 저변 형성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 기술개발의 원천, 산업의 연관(전후방 파급효과), 산업의 경기 대응력 제고,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의 개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의 신속한 적응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며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은 경제의 하부구조로서 고용창출 및 유지 능력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더욱 강조되어 질 수 있다. 최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국내중소기업제품이 저가의 외국제품에 경쟁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축소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생계형 자영업부문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숙박 및 음식업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생계형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과거 대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의 결과로서 허리가 약한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⁴⁰⁾

<표4-1> 숙박 및 음식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개수기준, %)

국가명	2003	2004	2005
미 국	6.3	6.4	6.5
영 국	5.1	5.3	5.5
독 일	8.6	-	-
한 국	21.6	21.2	21.4

97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퇴출 및 해외진출로 인한 고용기회의 감소로 생계형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단기처방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 생계형자영업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역할에서 대기업은 한계가 있다. 그 증거로서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추세이다. 대기업은 구조조정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에서 고용능력이 점차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보다는 고용창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개괄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서의 역할과, 경제의

40)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하부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공헌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이란 일상적인 의미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할 것인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예를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음식점, 제과점, 중소형 할인마트, 약국, 이용원, 미용원 등이 있는가 하면 공업단지에서 100명 이상의 많은 종업원과 함께 공산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표4-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내용

업종	개 편 전 (2000년 12월 31일 까지)	현 행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	상시근로자 기준 300~1000인 자산총액 기준 300~800억원	상시근로자 또는 자본금 기준 적용 - 300인,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근로자 기준 300~700인 자산총액 기준 200~500억원	상시근로자 또는 자본금 기준 적용 - 300인, 30억원 이하
건설·운수업	상시근로자 기준 300~500인	
농·임·어업	범위기준 없음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기준 적용 -200인, 200억원 이하(종자·묘목생산업) -100인, 100억원 이하(어업) -50인, 50억원 이하(농업, 임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기준 6단계 - 20, 50, 100, 200, 300, 400인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기준 5단계 적용 -300인, 300억원 이하(정보처리 산업 등 9개) -200인, 200억원 이하(통신업 등 34개) -100인, 100억원 이하(통신판매업 등 92개) -50인, 50억원 이하(도매업 등 116개) -30인, 20억원 이하(소매업 등 224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1995년 7월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에 근거한 정의가 200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중소기업기준 으로 개편 되었다. 실정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총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양적인 여러 기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가 구분이 되고 있다.

김종재 교수의 현대중소기업경영론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를 세 가지 특징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소기업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경쟁자가 많다.

둘째, 기업의 소유자 또는 부분 소유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경영조직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다.

셋째, 독립적인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분신적 기업이 아니며, 소유자인 경영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이처럼 중소기업의 정의는 기업의 생성과 유지, 발전, 소멸의 배경과 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설정이나 정부의 지원 대상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학문적·법률적으로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결국, 이는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이고 실은 이 정책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중소기업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중소기업은 작은 경영조직과 조직의 간소성으로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품의 생산측면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제품의 측면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이 개성·다양화되는 환경변화에는 매우 적합한 조직이다. 이러한 유리한 면이 중소기업자의 모험심, 개척정신과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

41) 김종재, 『현대 중소기업경영론』, 박영사, pp.6~7.

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다. 즉, 자본동원의 한계, 인적 자원의 열세, 정보부족, 창업자 개인의 기술과 관리능력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 경영자원구매의 불리함 등은 그 위협요소들이 된다.

(2) 경제적 특성

일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본 특성은 첫째, 존립 분야가 업종이나 지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즉,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자

본이 참여하지 않는 제조업, 수송업,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존립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활동하는 독과점적 지배가 강하고 시장 및 가격의 경직성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 경쟁을 통한 가격이 형성되어 건전한 시장구조가 갖추어 진다.

셋째, 중소기업은 대자본에의 종속성이 강하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인 독립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모기업과 하청계열체제를 통한 종속 관계를 이루어 있으며, 이러한 대자본에의 종속관계는 대자본과 중소기업 간에 대등한 거래관계를 왜곡시킨다.

넷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개업률이 높지만 폐업률도 높다.

다섯째, 유희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한다. 중소기업은 유희노동력, 즉, 중년층, 가정 부녀자, 계절노동자, 등의 노동력을 고용·흡수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은 대체로 지역적이므로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3) 기업 경영적 특성

경제적·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상 특성을 장단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은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요변화, 경기변동 등의 경영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이 노동집약적이고 기계화가 어려운 제품은 중소기업에 더 유리하다. 셋째, 대기업 비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기업운영이 주로 개인적인 기술에 의존되므로 기업의 지속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 둘째, 경영규모가 작으므로 그에 따라 능률적인 경영관리가 어렵다. 셋째, 자금의 조달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근대화가 어렵다. 넷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섯째, 사회적 신용도가 낮고 고용이나 판매활동 면에서 불리하다. 여섯째, 원자재 구입 시 소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할인을 받지 못한다.⁴²⁾

2.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

1) 중소기업체의 수 증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수는 2004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99.8%라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1%이상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놀랄 만한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함께 중소기업의 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6년 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 수는 264만 3,000여 개였는데, 2005년 기준으로 300만개로 전체사업자수의 99.8%에 해당한다. 그리고 9년 동안 중소기업체수가 무려 10%가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1.9%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의 증가는 중소기업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비중이 증대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42) 조희영 외, 전계서, pp.27~29.

〈표4-3〉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⁴³⁾

(단위 : 개, 명, %)

구 분	1997년도	2000년도	2005년도	비고
사업체수	2,697,098	2,86,134	3,006,053	
	2,672,983	2,854,081	3,001,893	
	99.1	99.7	99.9	
근로자수	11,100,491	11,530,908	12,222,161	
	8,260,062	9,677,648	10,77,623	
	74.4	83.9	88.1	

나무가 잔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굵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더라도 곧 말라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산업의 잔뿌리는 곧 중소기업들이다. 그리고 그 잔뿌리가 곧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기업의 굵은 뿌리는 중소기업 이라는 잔뿌리의 집합체에 의해 생존을 지원 받아야 정상적으로 뿌리내리고 꽃피우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무의 생존에 수많은 잔뿌리가 필수적이듯 중소기업 또한 우리의 경제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경제발전을 위한 활력소의 양산

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한 효율향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장 경쟁력의 미흡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국가든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IMF외환위기 시절에도 나라가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중소기업들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독점 또는 과점의 형성으로 경직화되기 쉬운 경제체제에의 경쟁자로서, 그리고 혁신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

43) 문국현(2008),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원 방안」, 문국현 의원실

사회의 활력소가 된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경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생산, 고용, 수출 등 양적 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의 주체로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는 활력 있는 다수(vital majority)이다.⁴⁴⁾

〈표4-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대별 경제발전 기여율⁴⁵⁾

기여율		60년대 (63~69)	70년대 (70~79)	80년대 (80~89)	90년대 (90~99)	00년대 (00~05)	전체 (63~05)
종사자수	중소기업	38.1	47.1	81.9	△6.8	106.7	77.8
	대기업	61.9	52.9	18.1	△93.2	△6.7	22.2
생산액	중소기업	26.5	32.2	45.7	50.3	53.8	49.5
	대기업	73.5	67.8	54.3	49.7	46.2	50.5
부가가치	중소기업	25.7	35.7	47.7	50.5	54.4	51.5
	대기업	74.3	64.3	52.3	49.5	45.6	48.5

3) 고용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크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05년 말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077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 명 늘어났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 수는 145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했다.⁴⁶⁾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보면 중소기업 고용은 2005년까지 310만 명 증가한 반면 대기업 고용은 76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체

44) 박준엽, 김종진 공저(2001), 『중소기업경영론』,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45) 한국정책학회(2007),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지원행정 효율화 방안」

주 : 1. 종사자수 5인이상 기준이며, 증감은 기간중 증감수치임,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46) 중소기업중앙회(2008.05.19), <http://smenews.kbiz.or.kr/article/>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1.5%로 전년(49.4%)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한 반면 대기업 비중은 50.6%에서 48.5%로 떨어졌다고 발표되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즉 국가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실업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한국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중소기업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4) 창업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GEM은 서방의 선진 7개국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27개국의 창업활동을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창업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평가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한국의 창업활동지수(TEA)는 14.85로 전체 평균(9.77)은 물론이고 미국(11.56), 아일랜드(12.12)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⁷⁾

〈표4-5〉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의 국제 비교⁴⁸⁾

(단위 : %)

구 분	10인 미만	10~50인 미만	50~250인 미만	250인 이상
한 국	88.6	8.3	2.9	0.2
영 국	71.7	21.0	5.9	1.5
독 일	62.1	27.3	8.4	2.2
일 본	50.9	39.2	8.5	1.4
호 주	72.6	21.8	4.1	1.5
프랑스	81.6	14.0	3.4	0.9

47) 박준엽,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 분석』, 경문사, p.187.

48) 중소기업연구원(2008), Issue Paper 42호.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창업은 실업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 되기도 한다. 창업이 성공하면 성취감, 경제적 여유 그리고 크고 작은 명성 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공한 대기업이 처음 창업 당시 거의 예외 없이 중소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상기한다면, 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업의 창업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중요성을 가진다.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증가해야 한다.

창업은 이러한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활동인 것이다. 또한 기업의 창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일자리란 개인에게는 생활의 수단이고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것이다.

5)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현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어 가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며 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의 하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의 역할이 고용창출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특별히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추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현상이 아니고 경제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이 확충될 것이다.

6) 개인적 기회의 증가

독립심과 개척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의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는 데 중소기업은 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혁신과 경쟁을 통한 성공이라고 하는 '미국적 이상'(American Dream)의 실현이라고 인식되고 있다.⁴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수와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중소기업분야에 취업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이 대기업에서의 취업에 비하여 불리한 정도가 감소될 것이며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짧은 기간 내에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개인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창업 및 운영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역량을 발로시키는 자연발생적인 분출구의 역할을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국민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수법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생산·고용·수출 등의 여러 경제 분야에서의 기여도도 높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진가는 이보다 사회전체의 효용을 크게 증대시키고

49) 박경열(2001), 『중소기업 경영론』, 형설출판사, p.63.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은 기업가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지탱했었던 기존의 한국경제 체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붕괴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경제는 현재 위치에 가장 적합하게 새로운 진로를 찾아 가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발전 할수록 한국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 교통, 산업 각 면에서 비약적으로 증대할 것이므로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중국시장을 등에 업고 일본과 경쟁하며 우리 경제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시대에 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영의 신축성이 높고 고품질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 지식 기반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세계시장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중소기업 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미래이며 새로운 도약의 중심축이다.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은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엔진이다. 국민경제는 건전하게 육성된 중소기업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은 점점 대규모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생산이나 구매, 판매면 또는 자금조달과 운영 면에서 대기업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중소 규모의 기업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대기업보다 뛰어나다. 앞으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물론 국

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수한 수공적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나 대규모화가 어려운 특수한 상품을 다종다양하게 생산하는 데 경제적이다.

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공업과 서비스업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중소기업은 개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소기업 특유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시기에 충실하게 재료를 다하면서 묵묵히 성장 일꾼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없이 국가경제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을 만큼 중소기업이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크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3. 국가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경쟁우위와 강점

우리는 아직도 규모의 경제를 과산하여 중소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기술 등 국제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저 원가 우위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장,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규모의 경제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혁신을 통하여 저 원가 우위뿐만 아니라 차별화의 우위도 달성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는 대기업의 강점인 규모의 경제와 같은 정태적 우위보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동태적 우위가 중요하므로 민첩성, 창의성, 유연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⁵⁰⁾

중소기업은 노사협력의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강점이 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나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일체감이 강하여 노사분규 발생비율은 매우 낮다. 가족기업과 같은 영세기업의 경우 노사분규가 발생할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으로 위기대처능력도 높다

앞으로 환경은 더욱 급변할 것이므로 민첩성, 창의성, 유연성, 높은 결속력 등과 같은 중소기업의 강점은 더욱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보는 시각도 문제형 인식론보다는 공헌형 인식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어두운’ 측면보다는 ‘밝은’ 측면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는 비대화되고 관료화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규모 기업들도 기업의 분할, 소사장제, 의사결정과정의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정산업에서의 국내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질 수 있다. 강력한 국내경쟁자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이 혁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력요소가 된다.

또한 국내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수출을 자극하고, 한 산업내의 경쟁은 다른 산업의 혁신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경쟁을 촉진시키는 활력소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의류, 가구, 세라믹 타일,

50) 김용구(2004), 『중소기업이 흥해야 한국이 산다』, 밀알, p.178.

피혁 제품 등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가족기업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도 적지 않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독과점적으로 국내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가 대만 등 다른 경쟁국가들 보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도 우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 국제화의 개념과 유형

기업의 국제화는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의 대외 지향성을 높여 가는 과정 또는 기업의 가치 활동을 해외로 이전하여 최적화의 가능성을 높여 가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⁵¹⁾

(1) 수출을 통한 국제화

수출은 재화의 국가 간 이동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해외시장 진출방식으로 수출업무의 수행 주체에 따라 간접수출과 직접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수출이란 종합무역상사나 수출대행회사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현지 생산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과 위험을 피하고 시장 확대에서 비롯되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수출대행회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국제화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수출은 제조업자가 수출전담부서 혹은 판매 법인을 통해 제반의 수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간접수출에 비해 해외의 주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므로 해외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반면에 수출입 업무에 대한 지식과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2) 계약을 통한 국제화

51) 김종재, 전게서, p.245.

계약에 의한 해외진출은 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 상표, 특허권 등 지적 소유권과 경영노하우 등 경영자산을 해외 기업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계약 방식에 의한 국제화는 상품이 아닌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하는 점에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자본투자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외투자 방식과 차이가 난다.

(3) 투자를 통한 국제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해외투자는 모든 부품을 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현지에서 단순히 조립 및 가공만 하는 형태로부터 전적으로 현지국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또한 현지의 단독 자회사와 합작회사는 기업의 신설 또는 현지 기존기업을 인수하여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하게 되므로 해외투자는 수출이나 계약방식보다 해외시장에 대하여 보다 강한 통제력을 가진다.

(4) 인터넷의 활용과 국제화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이며 따라서 E-마케팅에 관한 중요도와 향후 유비쿼터스의 생활과 연계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제 기업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 외에 국제화 나아가서는 글로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세계 일류기업으로써 중소기업“의 미래를 발전목표로 삼고 따라서 기업 비전도 국제화를 지향하고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핵심기획 상품의 경우, 사전에 상품명과 그의 발음이나 의미 그리고 색조 등에 해당국가에서 문

제발생소지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FTA⁵²⁾

중소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경쟁구조와 환경 속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국제경쟁 환경에 노출되고 익숙해지느냐에 달려 있다.

대외경쟁력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핵심역량 그리고 국제협력기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고속성장을 하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급속하게 국제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추세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문제는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나 정치·경제협약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특히 FTA 체결은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자유화 촉진, 시장 확대와 이를 통한 기업의 규모경제 달성과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가 양국 간 수출 경합도나 무역보완정도에 따라 양국 간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비춰 진다.

일반적으로 거시적 분석을 통해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해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산업별로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각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생활용품 등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52) 김성진(2006), 「한국의 중소기업(혁신전략과 정책방향)」, 매일경제신문사.

4.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우리나라는 저임금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저 원가 전략으로 국제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마케팅방법의 개선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혁신은 창조적 파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반발, 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혁신의 기회가 있을 때 이를 과감히 추진하는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국내외의 각종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다⁵³⁾.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새로 만들어 경영하는 중소기업가가 대기업의 관리자보다 혁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자는 대기업의 관리자보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강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생존자체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중소기업가는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가는 혁신의 성공에 따른 과실도 많이 차지할 수 있어 의욕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기술, 정보가 부족하지만 많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대기업은 조직과 운영이 방만하게 되면 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는 체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소규모의 연구인력 이나 시설로 기술혁신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혁신의 속도 면에서도 중소기업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의 간단하고 창조적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기술, 시장이 급변하고 제품수명주기가 빨라지는 국제환경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혁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은 앞

53) 김한원(2002), 『중소기업론』, 학문사.

으로 더욱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것이다.

기술개발의 추세도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술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다양한 신기술의 개화기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기술사업의 경우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자본집약적 공정보다는 노동집약적 공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 세분화 경향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혁신의 기회가 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따른 비용 상의 불리함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한다.

일본의 경우 부품에 관한 연구, 개발, 설계는 주로 부품제조 중소기업이 담당할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이들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회사, 전자회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을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하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하므로 더 많은 거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 국내기업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정보교환과 혁신추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세계시장의 여건 하에서 핵심부품을 해외의 공급업자에 의존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쟁우위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투철한 기업가정신의 결여, 정부의 각종 규제 등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우위는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추진하여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은 세부적으로 제품에 관한 경쟁자와의 차별화 전략, 경쟁자에 비해서 가격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격 우위전략, 얼마나 현지화 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겟 해외시장들에 대해서 통일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지 아니면 각 시장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현지화 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는지 알 수 있는 표준화 전략적 접근 정도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전략은 일반적인 기업의 해외시장공략 전략에 대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틈새시장 전략이 언급되고 있는데 틈새시장전략은 일반 대기업의 해외시장공략 전략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현지시장에서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틈새”분야를 개척하는 전략을 의미한다.⁵⁴⁾

이러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공략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거 주로 채택했던 가격위주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점차적으로 차별화전략, 틈새시장공략 전략 및 현지화 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반적 영향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은 최대 생산 25조원, 고용 50만 명, 수출 26억 달러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4) 박종귀(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p.142.

〈표4-6〉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⁵⁵⁾

구분	생산 ₁		고용 ₁		수출 ₁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생산성
	미고려	고려 ₂	미고려	고려 ₂	미고려	고려 ₂
제조업	2.7조원	11.1조원	2만5천명	10만7천명	22억	26억
서비스업	3.7조원	13.9조원	11만8천명	40만명	달러	달러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합의로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공산품, 임·수산물)분야에서 양측 모두 100% 관세 철폐, 94% 조기철폐(3년 이내)에 합의하였다.

한·칠레 FTA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다. 2003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상품의 95%가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02년 이후 둔화 추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세구조, 산업경쟁력, 산업별 분업구조에 따라 업종별로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에 따른 대미교역 및 신규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반면 수입증가 및 경쟁심화로 경쟁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출중소기업 3,000개사 대상으로 조사표를 발송하여 회수된 대미수출입 기업 답변 중 분석 가능한 538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07. 4), 조사대상의 54.4% 기업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협상결과에 만족 이유는 “관세철폐 효과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 및 신규 진출용이”,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으로 꼽았다.

한·미 FTA 협상결과 대미수출은 「5~10%미만」 증가로 예상한 기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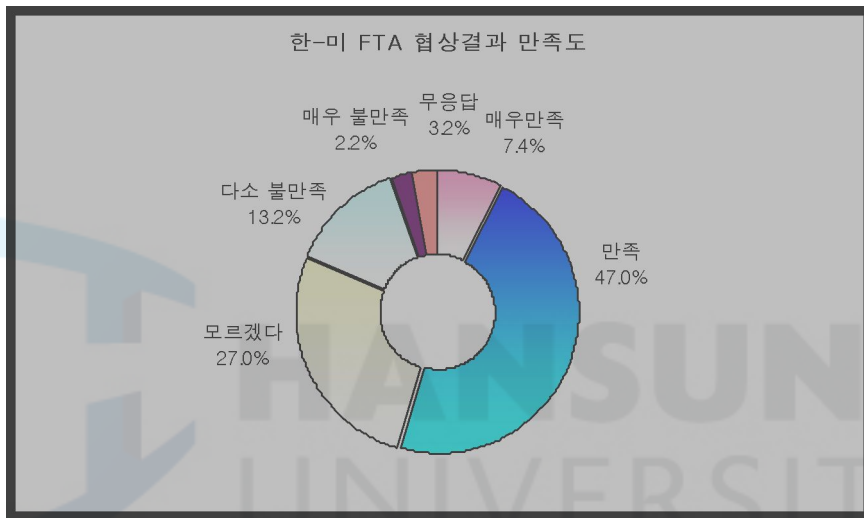
55) 이흥식(2006),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35.

주: 1. 부문별 경제효과는 각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을 감안하여 기존의 CGE(자본축적 모형) 결과를 기초로 추정함, 생산비중: 제조업 48.6%, 서비스업 40.3%, 고용비중: 제조업 79.9%, 서비스업 86.5%, 수출비중: 32.0%. 2. FTA 체결 후 국내의 생산성이 1%증가함을 가정한 것임.

44.6%로 가장 많았고, 대미수입 증가율 조사결과 「5%미만」 증가 예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미FTA협상결과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에 전체 404개 기업(75%)이 긍정적이거나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7〉 한-미 FTA 협상결과 만족도 조사(단위: %)⁵⁶⁾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모르겠다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비율	7.4	47.0	27.0	13.2	2.2	3.2



2)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

미국 섬유관세 즉시철폐(미국 수입액 기준의 61%)와 한국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원사 기준적용 예외 합의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억 8,000만 달러의 대미 섬유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이 대미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자동차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트렌드 제품의 소품종 고가전략이 진출 포인트이다.

자동차부품은 관세 즉시 철폐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능력과 미국의 낮은 자동차부품 조달율을 감안하면

56) 출처: <http://www.kosis.kr/search/totalSearch2.jsp?detailSearch=block&query=fta%20> 여론조사(2008.4)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

금속재료 및 화학 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속재료산업의 관세철폐로 대미시장 진출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구류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발이 진출의 포인트이다. 화학제품의 경우 범용 제품 중심으로 대미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기업과 M&A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 진출의 포인트이다.

기계 산업에 대한 수출효과는 부정적이다. 미국의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한국의 관세인하 효과는 큰 편이다. 대미수출을 위해서는 특화제품 개발(일반기계), 비가격경쟁력 확보(전기기계)가 시급하다. 대미수입 확대로 생산설비와 부품 수입단가 인하에 따른 원가경쟁력의 제고 및 대일의 존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표4-8〉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⁵⁷⁾

	업종	전국조합 및 연합회	영향 분석	피해액
긍정	섬유/의류	니트연합회 직물연합회	평균 3.1%의 섬유관세 철폐로 스웨터·양말·셔츠 등은 30%, 인조장섬유는 20% 대미 수출증가 예상	-
	가방	가방조합	가방은 미국측 3.3~20% 관세 즉시 철폐로 10% 수출 증가전망	-
	자동차 부품	다이캐스트(조)	대미 승용차 수출 증가 및 부품 관세 (2.5~3.2%) 즉시 철폐로 자동차 부품 20%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공구	공구(조)	미국은 다이아몬드공구 최대 수출 시장으로 대미 수출 15% 이상 증가 기대	-
부정	공구 펌프 통산기	공구(조) 펌프(조) 전자상거래(조)	툴홀더·초경드릴·원형톱등공구 15%, 액체펌프 15%, 통신기기 5~10% 대미 수입 증가 전망	-
	화장품	화장품(조)	우리측 관세 폐지로 기초화장품, 두발용 제품,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증가로 조합의 23% 7개업체의 피해가 상당할 것임	90억
	전기	전기(조)	디젤 발전기 8% 관세 즉시 철폐로 연 300억 매출 감소 예상	300억
	계면활성제 접착제	계면활성제(조) 접착제(조)	계면활성제, 접착제는 대미수입 증가 우려(계면활성제·접착제조합)	-
중립	금속 철강 전자	금속(조) 철강(조) 전자(조)	철강, 전자 관련 품목은 무세화의 진행으로 대미 수출입 신장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조사	-

57) 업종별 전국조합 및 연합회(212개)를 대상으로 조사, 23개 단체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07.4.9 ~ 4.11)

〈표4-9〉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업종별 영향⁵⁸⁾

구분		섬유	금속	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중소기업 비중 (%)	생산	89.1	90.0	66.3	66.6	48.6
	수출	90.0	36.2	40.5	21.6	29.6
경쟁력 우위부문	한국	중저가 범용품	저부가가치 상품	석유화학	가격	전동기, 변압기
	미국	고부가 가치품	고급제품	정밀화학, 원료	기술, 디자인	신형 발전설비
수출증대부문		전반적	공구류	석유화학제 품	공작기계, 냉동공조 기기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수입증대부문		수입증대 미미	일부품목 소폭 증대	화학원료 부가가치제품	반도체 제조기계 링	대용량 발전기
진출포인트		-소품종 고가 전략 -패션, 트렌 드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브랜드개발	-물류비 절감 을 위한 전략 적 제휴 -R&D 역점	-특화제품 -모듈형태 제품 개발 필요	-비가격경 쟁력 확보 -대기업과 동반지출

주 : 중소기업 비중은 업종별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과 수출액의 비중임.

정부조달분야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가능하나 규모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허수준 하향조정(10만\$), 건설 분야에 민자 사업 포함 등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사무용품 부문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지역을 인정, 입주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으로 대북경협 확대가 기대된다.

원산지 증명절차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58) 중소기업청(2006),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조사시스템, Kotra(2007),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자율증명, 현장 검증제 도입, 수입화물 신속 반출제(48시간 내),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합의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통관에 따른 비용감소와 시간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 분야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미국의 신용평가사 영업, 신금융서비스 부분 개방에 합의했다. 신금융서비스 부분개방에 의해 중소기업의 신규자금조달 경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식’ 기업신용평가제도 적용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한·미 FTA 체결 후 한국 및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섬유, 기계류, 교육서비스 등은 경쟁력 상승을, 오락/문화/운동관련 등은 경쟁력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섬유), 기술개발(기계류), 제3국과 투자협력 및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중견기업)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시장에서 섬유, 기계류, 숙박/음식/관광 등은 경쟁력 상승을, 금속, 화학 등은 경쟁력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장정보가 필요하며, 중견기업일수록 미국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 한EU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반적 영향

EU(European Union)는 유럽 27개 나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거,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6개 나라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2004년 5월 동유럽 10개 나라의 EU가입까지 모두 5차례의 확대로 EU는 2007년을 기준으로 4억9천만 명의 인구와 16조 6천억 달러의 GDP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단일시장이다.

EU의 기존 회원국으로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5개 나라가 있다. 2004년 가입국으로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 나라가 있다. 2007년 1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새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며 유럽지역 선·개도국 27개 나라를 포함한 경제통합체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가 EU와 외교관계를 맺은 지 45년이 지난 지금 두 지역 사이의 경제관계는 크게 발전하였다, 2007년 기준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며,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제4위 수입시장이다. 동시에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1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국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와 EU사이의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세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60년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섬유, 봉제제품을 수출하던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기술 수준과 적은 자본으로 인한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기계설비와 같은 독점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상품인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을 하였다. 이 시기의 두 지역의 통상관계는 국제 분업원리에 의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1980년대 우리나라는 기술이 향상되어 철강, 조선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상품을 가지고 EU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분야의 EU산업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EU는 우리나라의 EU시장으로의 진입을 제지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1990년대의 한-EU 통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이 바탕이 되는 첨단산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EU의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러한 산업에 진입하는 데는 커다란 위험부담과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이 필요하였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하고 나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와 이에 따르는 독점지대를 향유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이러한 산업분야에서 EU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상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EU와의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와 EU는 대체로 상호 보완적인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의 경우에는 세부품목에서는 상호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전자제품과 수송기계에서, EU기계류와 화학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4-10〉 우리나라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무역현황⁵⁹⁾

(단위:백만 달러)

국가	수출		국가	수입		국가	총무역	
	07	08		07	08		07	08
중국	69,459	81,985	중국	48,557	63,028	중국	118,016	145,013
EU	48,450	56,253	EU	51,926	56,250	EU	78,560	93,076
미국	43,184	45,253	미국	33,654	37,219	미국	76,838	82,985
ASEAN	32,066	38,748	ASEAN	30,110	36,823	ASEAN	78,460	82,620
일본	26,534	26,370	일본	29,742	33,110	일본	61,809	71,858

(표4-7)를 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EU에의 수출실적은 562억 달러, 수입실적은 368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 930억 달러의 무역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증가이다. 또한 EU의 신규 가

59) 한국무역협회, 2008

입국 확대로 우리나라의 EU로의 수출은 2003년 이후 급상승하여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4-11〉 한-EU 무역현황⁶⁰⁾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수출	23,424 (△15.7)	19,627 (▼16.2)	21,694 (△10.5)	24,887 (△14.7)	37,830 (△52.0)	43,660 (△15.4)	48,450 (△11.0)	56,253 (△16.1)
수입	15,788 (△25.0)	14,920 (▼5.5)	17,107 (△14.7)	19,380 (△13.3)	24,187 (△24.8)	27,295 (△12.9)	30,110 (△10.3)	36,823 (△22.3)
총무 역량	39,212 (△19.3)	34,547 (▼11.9)	38,801 (△12.3)	44,267 (△14.1)	62,017 (△40.1)	70,955 (△14.4)	78,560 (△10.7)	93,068 (△18.5)
무역 수지	7,636	4,707	4,587	5,507	13,643	16,365	18,340	19,430

1980년대 EU로의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는 1991년 이래로 1997년까지 무역적자상태를 보인다. 특히 1994년 이후부터는 EU로의 무역적자규모는 커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와 EU사이의 무역적자현상은 그 시기 EU의 시장통합에 따른 유럽내무역의 비중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투자관계

EU는 제 1의 우리나라에의 투자국이다. 2003년 EU은 우리나라에의 투자국 중 제1위의 투자국이었으나, 2004년 미국의 우리나라에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제2위의 투자국으로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EU의 투자 급증으로 인하여 2년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의 제1위 투자국이 되었다.

2006년에는 EU의 투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62~2006년 동안 EU의 우리나라에의 투자는 네덜란드(32.5%), 독일(17.2%), 영국(15.3%), 프랑스(11.1%), 벨기에(7.4%),

60) 한국무역협회, 2008

스웨덴(6.7%)의 서유럽 6개 나라가 주도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영국과 스웨덴의 우리나라에의 투자가 급증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EU에의 투자는 중국, 미국, ASEAN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EU로의 투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동유럽지역의 시장진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FTA 확산 속에 우리기업들은 FTA 미체결에 따른 관세·비관세장벽, 정부규제 등 불이익을 받아 글로벌경쟁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FTA협정에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분쟁해결, 경쟁정책 등이 폭넓게 포함되는 추세로 과급효과가 전통적 무역확대의 효과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흑자시장인 중남미는 FTAA, Mercosur 등 활발한 지역경제통합노력과 함께,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FTA체결 움직임으로 현지 우리기업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이다.

관세장벽보다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나 관세장벽과는 달리 이는 정확한 실상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1. 세계 주요 FTA 성공사례

▲ 사례 1 : EU의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쟁력 제고

- EU : 세계인구의 6.1%에 불과, GDP는 전 세계 GDP의 24.7%
 - 교역규모는 전 세계 수출의 40.2%, 수입의 35.7% 점유(2007년 기준)
- 단일시장의 평가
 - 추가고용 창출 : 250만 명
 - 추가GDP 창출 : 8,770억 유로
- EU기업의 경쟁력 제고
 - 대역의 수출 : 9,850억 유로('01년) → 16,850유로('07년)
 - 대역의 투자 : 2,060억 유로('01년) → 14,060억 유로('07년)
- 정부조달시장 개방(EU GDP의 21.3%)
 - 정부조달에서 역내회원국 낙찰비율 7%('97년) → 12%('04년)

▲ 사례 2 :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대일 적자품목의 수입규제)

-1999.6월 최종 폐지되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전자, 승용차, 일반 기계부품은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이 됨.
-특히, 전자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업체들의 경영실적, 브랜드가치상승을, 반도체, 휴대폰 TFT-LCD 점유율에서 일본기업을 앞서고 있음.

▲ 사례 3 : FTA 체결국간에 반덤핑협정의 적용을 상호 배제하며, 통상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을 통해 자체 해결

-호주·뉴질랜드 경제협정(CER), 칠레·캐나다 FTA는 체약국간 반덤핑제소 불인정
-NAFTA 경우 분쟁발생시 패널이 즉시 구성하여 8개월 내에 판정

▲ 사례 4 : NAFTA ⇒ 무역창출/전환효과로 역내 교역 지속적 확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1994년 발효, 인구 414백만 명, GDP 11조불)
· 역내국간 무역장벽완화 및 시장개방으로 3국 공히 경제성장 촉진
· 미국 추진 무역협정 중 최초로 노동 및 환경관련 주요 협력부문 포함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교역증가율을 크게 상회
· '94~2002년(9년간) 미국의 NAFTA교역증가율 109%(2960→6210억불)
· '94~2002년(9년간) 세계교역증가율 68%(7조5,510→12조5,000억불)

▲ 사례 5 : NAFTA의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

-미국 : 역내수출증가로 91만명(97~95)의 고용증대효과가 발생, 관련분야 종사자의 임금이 미국 내 평균보다 13~18% 높음
-캐나다 : 수출 분야 임금이 여타분야보다 35%정동 높음
-멕시코 : 96~95년 동안 제조분야 총고용 창출의 절반이 수출 분야에서 발생 (이 분야 임금은 내수위주제조업보다 40%높음)

2. 한국의 피해 사례

▲ 사례 1 :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상 애로

현 자동차 수입정책(현지생산라인이 있는 자동차업체에 한해 수출물량만큼 수입허가)은 2004년부터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실시하고 있고, 대멕시코 자동차수출은 가격경쟁력에 상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미국, EU 등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일정량에 한정, 수입 허용 중이다.(현 수입관세 10%, 점진적 인하)

▲ 사례 2 : 멕시코, 정부발주 대형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 제한

-PEMEX(멕시코 석유공사) 등 정부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참여 자격 부여
· 한국건설업체들은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다만, 입찰참여 업체가 적어 입찰이 유찰될 경우에만 PEMEX의 요청으로 FTA 비 회원국에 대해 참여를 허용하는 상황

▲ 사례 3 :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 장벽

-브라질 정부는 타이어 규격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FTA나 상호 규격 인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산에 대해 자국 I-Mark 획득 강요, 통관 지연, 추가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요인화
-멕시코도 수입 타이어에 영문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고, 자국 내 스티커에 따라 스페인어 규격 표시 부착 의무화
-멕시코는 가전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 자국 업체에 유리한 안전 규격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규격검사를 자국 업체에 위임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포장재 사용 및 방역조치에 대한 한국 내 발급증명을 무시하고 재포장 및 방역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당대우

▲ 사례 4 : 칠레, EU로 수입선 전환

- 2003.2월 칠레-EU간 FTA발효이후 4개월(03.2-5월)간 칠레 총수입액 55억 불 중 3,000만 불 상당이 EU로 수입선 전환
- 이 기간 중 칠레의 對EU 수입은 2억 3,700만 불(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칠레의 對 EU 수입전환 3000만 불 중 31%가 한국 수입 분야에서 발생
 - 對한국 수입 감소분 : 940만 불
- * 한국에서 EU지역으로 수입 선이 전환된 자동차, 핸드폰, 금속제품의 EU산 수입이 3배 증가
(자동차→ 프랑스, 핸드폰 → 독일/프랑스/핀란드/스웨덴/영국, 알루미늄 및 아연류 금속제품→ 룩셈부르크 산으로 수입선 전환)



제 5 장 FTA시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제 1 절 FTA협상결과 중소기업의 예상되는 피해와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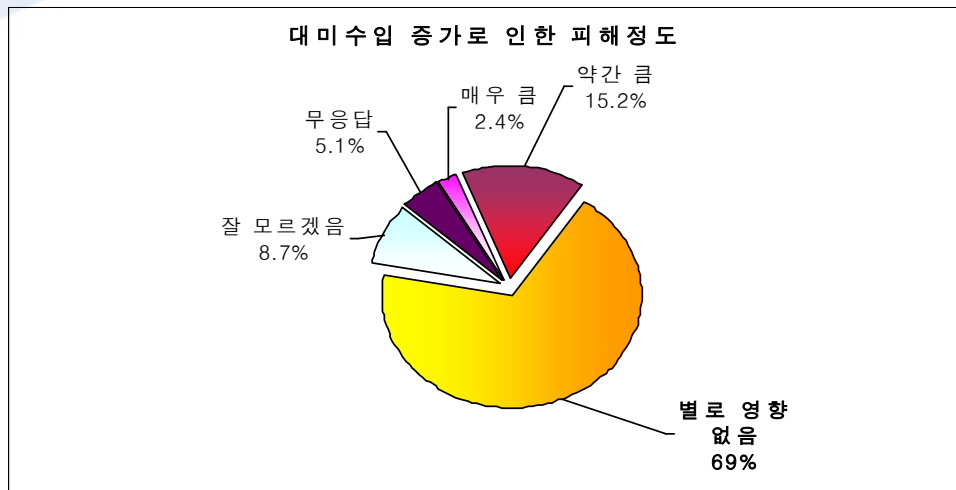
1. 한-미FTA

1) 예상되는 피해

한·미 FTA협상결과 우리 측의 높은 관세율 폐지로 대미 수입이 증가 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조사한 결과 「매우 큼」 13개 기업(1.4%), 「약간 큼」 82개(15.2%), 「별로 영향 없음」 369개(68.6%), 「잘모르겠음」 47개 (8.7%)로 대미수입이 증가하여도 약 70%의 중소기업은 별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1〉 FTA 협상 결과 중소기업 피해 예상(단위: %)⁶¹⁾

	매우 큼	약간 큼	별로 영향 없음	잘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비율	2.4	15.2	68.6	8.7	5.1	100



61) 출처 <http://www.kosis.kr/search/totalSearch2.jsp?detailSearch=block&query=fta%20>
(2008.4) 중소기업청

여론조사

우리 측 관세인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추산금액 조사결과 기계 분야의 피해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관세 철폐 시 미국의 첨단 기계제품의 수입증가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이 어느 정도 기술 및 품질을 향상하여 양국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계의 노력 및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다.

〈표5-2〉 업종별 중소기업 예상 피해액⁶²⁾

	영향 분석	예상 피해액
섬유/의류 분야	Yarn Forward에 따라 실질이득이 없음. 관세장벽은 철폐되거나 Yarn Forward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효과를 보지 못하고 비싼 국산원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더욱 피해가 클 수 있음	1000만원~7억원
화학 분야	2004년도 기준 정밀화학분야의 미국 관세율은 평균 2.64%로서 우리나라 6.87%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관세 철폐시 미국으로의 수출 효과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제품의 수입증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3000만원~50억원
철강 분야	-한·미 양국은 '04년 1.1일부로 철강재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세 철폐를 통한 직접적인 무역효과는 없음 -철강재 수입은 '04년 5만 6,000톤 및 '05년 5만 9,000톤에 불과하여 한-미 FTA 체결 시 미국산 철강재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	40억
기계	-우리나라 일반기계 산업은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5년 기준 18.4%(41억 달러), 수입비중이 20.6%(44억 달러)이며, 일반기계 산업의 구매특성상 양국의 관세가 철폐 되더라도 교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첨단기계류 및 부품(전자부품장착기, 수직형머시닝센터, 액체펌프, 베어링, 밸브등)은 기술·품질 면에서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 제품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3억~300억
전자 전기	-(전자) 미국측은 영상 및 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타품목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 철폐시 소품의 수출 증가 기대 - (전기) 대용량 발전기, 초정밀배정제어장치, 원자로 등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000만~3억

62) 중소기업중앙회(2006), 「한·미 FTA와 중소기업」, 업종별 예상 피해액은 업체별로 추정금액이 달라, 피해규모액 파악이 어려우며, 위 피해액은 1개 업체당 피해액임
-사업전환촉진법: 사업전환지원과 건설딩에 향후 10년간 각각 2,569억 원, 88억 원 소요 예상(중소기업청)
-무역조정지원법: 피해기업구조조정, 고용 안정에 향후 10년간 총 2조 8,473억 원 소요 예상(중소기업청)

2) 대응방안

첫째, 기존 수출업체는 물론 수출경험 또는 미국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단계별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정보, 파트너 선정, 수출교육, 재정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진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둘째, 대·중소기업, 중·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생산과 판매에 있어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화학, 고무/플라스틱, 전자기기 등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간 협업으로 미국시장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대미수입증가에 따른 대책은 ‘수입경쟁력’ 강화, 틈새시장 개발, 피해지원으로 나눈다. 관세철폐 효과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하여 ‘수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 고기능 첨단섬유 등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또 한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제품의 국내 애프터서비스 시장을 개발한다. 미국의 수출기업 중 50% 이상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이어서 수출시 사후관리가 취약하다. 피해지원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폐업과 사업전환, 휴식설비 인수활성화, 고용안정 등으로 유도한다.

넷째, 단기적인 정책대응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U, 중국, 인도, 아세안 등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FTA 경제효과에 기초한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피해업종에 대한 요소 투입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 활동 보장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단기 정책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산업간, 산업 내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다섯째, 한·미 FTA에 국한된 시각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시적인 수입증가를 확대 해석하여 反FTA 정서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FTA는 체결 당사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상호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진출도 가능한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FTA는 단기적인 기대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동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국내경기 침체 및 시장포화,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중국의 성장이라는 대내외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한·미 FTA는 정부의 보호 속에 국내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 FTA 체결로 글로벌 시장 원리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중소기업 중 40%의 중소기업은 미국기업을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국과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동종기업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가 가능한 동종기업을 두려워하는 40%의 중소기업이 과연 지원의 대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곱째, 한·미 FTA는 글로벌 시장 및 경쟁을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이므로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양하는 좋은 기회이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산업내·산업간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고도화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단기적인 피해기업 지원은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더디게 한다. 특히 특정 FTA에 집중된 피해지원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시 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역조정지원법과 사업전환촉진법을 활용한 피해지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쟁과 시장’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한국과 미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정부는 한·미 FTA

를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참여 촉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산업내 무역은 활발한 반면 양국 간 경쟁은 미약하다. 양국은 섬유만 일반무역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업종은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 세계시장에서는 전기기계만이 미국과 수출경합 관계이며, 나머지 업종은 미국과 수출비 경합을 벌이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산업구조는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국은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간 분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면, 상호투자를 통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 및 디지털화된 기계류, 전력IT, 내연 및 터빈분야, 고기능섬유 등이 분업체계 구축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한-EU FTA

FTA 체결 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EU FTA의 영향분석을 통해 인지된 산업별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의 기회를 삼아 수출경쟁력 상승업종 즉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품목별 관세양허 계획과 일정을 검토해 시장접근전략을 강화하되 특히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분업이 활발한 업종 즉,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생산비용의 절감 및 완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를 확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보면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으로 경쟁력이 낮고 분업효과도 희박한 산업이다. 이러한 피해예상 산업에 대해서는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구조조정 및 M&A 등 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5-3〉 업종별 전략

	수출경쟁력상승 업종	산업내 분업활발업종	타격예상업종
업종	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전자부품, 조선, 자동차 등	가구, 조립금속, 석유 화학, 컴퓨터, 섬유, 자동차 등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 속 등
전략	시장접근 전략 -품목별 관세양허 일 정에 따른 적극적 수 출확대계획 수립 -일본, 미국 등 경쟁국 대비높아진 가격경쟁 력 적극 활용	비용절감전략 -해외직접투자 및 국 내진출 EU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분업 확 대로 생산비용 절감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전략 실시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M&A 등 생존전 략 추진

우리나라는 관세인하와 기타 우대되는 혜택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EU 및 주변 시장 공략이 필요하며 해외직접투자의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EU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만하다. 특히 노동,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나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교류수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활용, 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EU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 EU회원국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매확대 전략추진 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선진국 중심의 서유럽 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의 특성도 고려함으로써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하며 다양한 소득수준과 소비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볼 수 있다.

제 2 절 정부의 중소기업 대응 및 지원 방안

1. 한-미 FTA

한-미 FTA는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대 성장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대형화·전문화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가장 큰 기회요인은 세계최대 규모의 미국 수입시장 개방이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미국의 거대 수입시장 개방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협소한 한국의 내수시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수익성 악화, 전문화 부진 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물론 한-미 FTA 추진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이 급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수시장에서 주거래 대기업이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부담을 하도급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체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므로 미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미국 시장은 세계 최고의 제품간 경쟁이 전개되고 고객의 니즈가 까다로운 만큼,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가격 못지않게 품질, 기술, 디자인, 유통경로 등 비가격요인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기업의 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미국 내 판매망 이용, 미국 벤처캐피털을 통한 투자유치 등 부가가치 사슬상 보완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업과 협력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정부는 한-미 FTA를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참여 촉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산업내 무역은 활발한 반면 양국간 경쟁은 미약한 편이다. 양국은 섬유만 일반무역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업종은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 세계 시장에서는 전기기계만이 미국과 수출경합 관계이며, 나머지 업종은 미국

과 수출비 경합을 벌이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산업구조는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국은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할 경우 FTA 체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면, 상호투자를 통한 ‘수직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게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정보화 및 디지털화된 기계류, 전력 IT, 내연 및 터빈분야, 고기능섬유 등이 분업체계 구축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피해지원을 강구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정책방향과 법률적 지원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한-EU FTA

EU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고 시장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EU의 경제성장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급속한 시장통합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다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서비스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전한 장벽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EU FTA에서 한국 정부는 역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시장 통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자유화 정도를 동등한 지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내국민 대우 요건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 간 현안에서 정부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하여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정한 FTA에서의 상품양허 방식이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사실을 멕시코의 사례가 보여준다.

농산물의 경우 직접지급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EU의 사례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농촌개발을 촉진하고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5

년 홍콩 DDA 각료회의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농산물 관세율 구조는 관세할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 할당 시 할당액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가 강한 한국의 농산물 관세율 구조를 고려해볼 때 높은 관세율 구조를 완화시키면서 관세할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는 EU가 DDA에서 결정된 수출보조제한 이전에 수출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무역구제조치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다. EFTA와의 FTA 협상에서는 한국과 EFTA 국가들이 프렌즈그룹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구제조치 남발에 대한 상당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EU는 이와는 반대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장 안전한 방식은 WTO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양측 무역구제기관의 공동 관심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규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가격결정기준, 그리고 역외가공 인정 여부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세 번 변경이나 특정가공공정의 탄력적 적용이 우리 산업,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가격과 관련해서는 FOB 또는 공장도가격 결정 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역외가공 인정 여부는 남북 합작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인정품목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TBT와 SPS의 경우 EU측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EU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른 사안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었었다. GATS DDA 2차 양허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최혜국대우를 인정하는 문제, 시청각서비스 진

출과 과세문제, Mode 4의 허용 폭과 속도,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었었다.

경쟁 부문은 양국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온 분야다. 경쟁 부문이 양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경쟁법의 상호 적용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쟁위반사례에 대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을 준수하되, 삼페인 등 특별히 EU가 요청하는 분야에 대해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투자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투자분야의 명확화가 주요한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결 론

본 논문에서 이제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FTA의 시대의 한국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탈피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이나 EU 등 세계 여러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수출업체는 물론 수출경험 또는 미국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단계별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정보, 파트너 선정, 수출교육, 재정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진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구성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렇듯중소기업의 수출 경험의 유무를 가리지 말고 정부는 단계별로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법률적 지원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가장 큰 기회요인은 앞에 장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최대 규모의 미국 수입시장 개방이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미국의 거대 수입시장 개방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협소한 한국의 내수시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간 과다경쟁, 수익성 악화, 전문화 부진 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물론 한-미 FTA 추진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이 급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수시장에서 주거래 대기업이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부담을 하도급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할 경우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셋째, 자체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므로 미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미국 시장은 세계 최고의 제품간

경쟁이 전개되고 고객의 니즈가 까다로운 만큼,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가격 못지않게 품질, 기술, 디자인, 유통경로 등 비가격요인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기업의 기술 및 경영기법 전수, 미국 내 판매망 이용, 미국 벤처 캐피탈을 통한 투자유치 등 부가가치 사슬상 보완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업과 협력 추진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미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한-미 FTA보다는 한-EU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EU는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 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추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기존의 피해지원 제도에 서 탈피하여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과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뒷받침은 물론 성

공적인 FTA의 시대를 맞이하는 ‘조정자’ 역할이 강조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한-미,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업계도 對미 FTA, 對EU FTA 타결 및 가서명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FTA타결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5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즉 대량의 실업사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우려이자 숙제이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악영향보다는 기회요인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국제화, 전문화, 대형화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한-EU FTA는 경쟁정책, 지적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미국,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EU와의 FTA는 바람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미국,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발효 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미, 한-EU FTA의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중소기업의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FTA의 체결과 추진 중인 FTA에 대하여 많은 참고문헌과 자료는 얻었다.

본 연구자 입장에서는 미국과 EU, 우리나라의 정부와 중소기업에 대해 각 FTA대한 정부의 협상결과와 선행 연구자들의 실증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을 참조 하였으나, 표본기업의 수와 심층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산업별로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소기업의 비교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정부의 FTA의 체결·추진현황을 참고하고 선행 연구자의 견해를 통해 분석하였기에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미비했고, 또한 정부의 FTA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FTA시대에 대비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측정수단에 있어 잠재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급변하는 FTA시대의 환경에 따라 체결국으로 진출하는 우리중소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진출방법이나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미국이나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의 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FTA시대의 한국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등 중소기업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모, 『중소기업 창업론』, 신광문화사.
- 기은경제연구소(2007), 「한·미 FTA가 우리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혁신전략과 정책방향)」, 매일경제신문사.
- 김세영(2008), 『국제무역론』, 삼영사.
- 김수희(2009),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신아사.
- 김용구, 『중소기업이 흥해야 한국이 산다(대기업, 당신들도 중소기업하면 망한다)』, 밀알.
- 김홍중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홍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노순규(2009), 「한-EU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박경열, 『중소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 박상범, 『중소기업경영론』, 삼영사.
- 박상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동방미디어.
- 박재린, 『최신 중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 박준엽,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 분석』, 경문사(수학).
- 박준엽, 김종진, 『중소기업경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배기형(1993),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 송원근(2008),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오동윤(2007),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이재기(2005), 『FTA의 이해』, 한울 출판사.
- 이재훈, 경세원, 『중소기업경영론』.
- 이종원 외(2007), 『한-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이준규(2006),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2006),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6), 「한·미 FTA의 거시경제 및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조석홍, 『중소기업경영론』, 두남.

중소기업중앙회(2006), 「한·미 FTA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청(2007),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부문 영향 및 대응 방안」, 중소기업청.

한정화 외, 『중소기업론』, 경문사.

KOTRA(2007), 「대미수출 부진 원인과 한·미 FTA 활용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제07-005호.

KOTRA(2007),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Global Business Report, 제07-010호.

KOTRA(2007),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통상전략팀.

KOTRA,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통상전략팀

2. 외국문헌

Ichian, A., and Harold Demsetz(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Coase, Ronald,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 Vol4.

Haggard, Stephen(1988),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USTR(2001), Joint Statement of the NAFTA Free Trade Commission, July 31.

3. 기타자료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박세운(2007), KOSBI ISSUE PAPER, 제26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http://seoul.smba.go.kr/>

세계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2008.(www.oica.net)

외교통상부(2009),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http://fta.go.kr>

중소기업정보은행 지식나눔터 <http://ksc.digitalsme.com/kms/>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ABSTRACT

The Strategy to Sec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FTA age

Park, Byung Chae

Major in Digital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Digital Small

and Medium Business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As industry capitalism has development, barrier among the nations have disappeared and markets has been unified, so, many nations conclude FTA. Although promoting the free trade, FTA is used to seek a profit in actuality. South Korea make an effort to conclude FTA with EU, China and India, as making a contract with America.

When South Korea conclude an entente with America, many people mention that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and all social standings give their a variety of opinion. However, we have to carefully listen disagree opinion who has maintained South Korea security sector situation has absolutely depended on to USA. So, as a result definitely South Korea won't able to own market. South Korea conclude FTA with America any way and greet a new era. People is interested in Korea-America FTA, So, nation study that.

There are lots of comprehensive view, but we don't know what effect

the small enterprises has and what strategy small and midium enterpreises come out.

The mass media demonstrated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actually in charge of our economy, but there is a lament for the lack of the research o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uture.

Our country has already agreed on a free-trade deal.

Therefore, I will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way forward for their progress, with a hope that the research would be contributed to be beneficial to an effect which FTA has an influence on them.

At this time, trade barrier has removed in the over the world through FTA. We have to combine small and midium enterprises' constant effort and government's support, so we'll have small enterprises developed.

HANSUNG
UNIVERSITY